

“폭력적이고 저질스런 책은 싫어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122명의 책읽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주로 창작동화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을 좋아하며 《삼국지》를 가장 많이 읽는다. 일본 성인만화와 공포·개그시리즈는 많이 읽고 있으면서도 출판되지 말아야 할 책으로 꼽는다. 또한 책읽기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받기보다 지식과 정보,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실용적이며 보수적인 독서관을 지닌다.

이같은 어린이의 책읽기 성향은 본지가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시내 4개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가운데 독서반이나 글쓰기반 활동을 하는 등 책읽기에 큰 관심을 가진 어린이 122명(남 46, 여 76)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창작동화와 소설을 가장 선호

수치에 얽매지는 데이터를 산출하기보다는 책과 독서에 관한 어린이들의 솔직한 생각을 듣는 데 역점을 둔 이번 설문은, 어린이들의 최근 독서경향과 책을 읽는 목적 및 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출판사 및 작가에 대한 인지도 등 크게 4가지 주제 7개 문항으로 마련됐다.

어린이들의 독서경향에 대해선 우선 책읽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분야별로 다양하고 고른 독서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책 읽기를 즐겨 하는 어린이들이 자주 손에 드는 책은 문학

우리나라 어린이는 주로 창작동화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을 좋아하며 《삼국지》를 가장 많이 읽는다. 일본 성인만화나 공포·개그시리즈는 출판되지 말아야 할 책으로 꼽는다. 좋은 책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외로 엄정하고 까다롭다.



성자초등학교의 어린이들

작품(83종)이 압도적이다. 국내의 동화(52종)나 소설(31종)이 전체(146종)의 57%에 이른다. 전기(14종), 과학(13종), 고전(10종)도 비교적 고르게 읽는 편. 역사책(4종)에 대한 관심이 적은 반면 만화나 개그·공포시리즈(17종)를 상대적으로 많이 읽는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삼국지》(9명)다.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5명)도 꽤 많은 어린이들이 읽었다. 이외에 《세익스피어 4대 비극》과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4명), 《죄와 벌》, 《이야기 한국사》, 《안네의 일기》(3명)도 좋아하는 책으로 꼽혔다. 특이하게 《아버지》나 《좀머씨 이야기》 《콘

트라베이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같은 성인용 베스트셀러를 읽은 어린이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책은 일본의 성인만화 《짱구는 못말려》(28명)와 《유머랜드》(10명)라는 개그집. ‘만득이 시리즈’ ‘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공포특급’ 같은 유머나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가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여자어린이의 경우 《16세 어린이가 아니라고요》 《그대를 잊을 수 있다면》과 같은 순정소설도 몇 권 지목했다.

“선생님이 사라고 한 책” “친구들이 책을

거의 안읽음”이라고 쓴 어린이도 있었고, 잠 지나 만화를 지목한 아이들도 많아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안읽거나 읽어도 흥미 위주의 책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책은 학습효과가 첫째조건

책을 읽는 목적에 관해서는 어린이들 대부분이 독서의 실용적인 효과에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전체의 72%(88명)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을 독서의 제1목적으로 꼽았고,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34명), 글쓰기나 맞춤법, 논술이나 학습효과(33명) 등에

어린이 독자에게 인기 최고

서울 신암초등학교 심경석 교장



“계엄을 피우지 않고 성실히 작품을 써왔고 독자인 어린이들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

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여 안녕》 《학교는 밤마다 이상해》 등의 장편소설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심경석(65, 신암초등학교 교장)씨가 어린이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은 작가”로 꼽혔다. 서울대 사범대에서 교육학을 전공, 대학 졸업반때 동화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집필에 매달려 왔다. 그간 펴낸 동화가 줄잡아 50~60권.

내년이면 정년이 된다는 심교장은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집필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심교장에게는 책쓰는 일이야말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박남정)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지경사 김병준 사장



지경사의 김병준 사장(43)에게 ‘어린이들이 뽑은 좋은 출판사’라는 타이틀은, “어린이 책은 그들의 눈

과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에 대한 보답이다. 문학·컴퓨터·만화 등 우여곡절 끝에 1984년 아동단행본 출판으로 방향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출간한 책은 모두 1,400여종. 그 가운데 1986년 발간한 《별난 국민학교》는 35만부나 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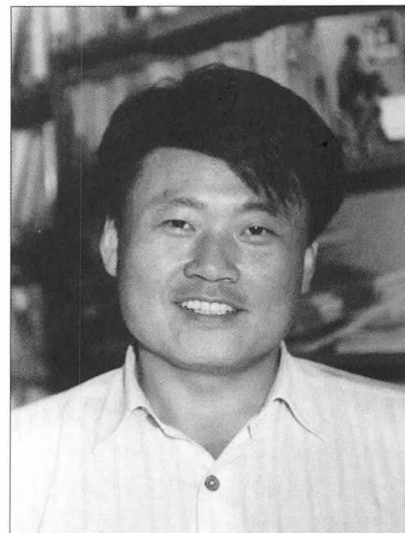
“어른의 눈으로 뽑은 아동도서목록, 아동문학상 수상작이 어린이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김 사장은 문화전반이 어린이의 요구에 무심하다고 개탄한다. 어린이에게 독후감쓰기나 독서시행으로 ‘고문’을 안겨주는 책보다 ‘이건 내 얘기네’ 하며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현주)

어린이를 걱정하는 책 장사꾼

소병훈

산하출판사 대표

내 자식에게 보여줄 책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판을 시작했지만 곧 독자들의 '감시'와 격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때 떠올린 말이 '불우국 비시야'. 나라 어린이를 걱정하지 않는 게 어찌 참된 어린이책 장사꾼이라.



소병훈 사장.

강진 유배시절 다산의 삶은 실로 신산스러웠다. 그 쓰라린 적거생활을 견디게 해준 힘은 임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을 포함한 세력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널리 알려진 대로 바로 학문에의 정진이었다. 다른 하나는 비록 손수 건사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가 거느린 기술들이었다. '불우국 비시야(不憂國非詩也)', 시란 마땅히 나라와 백성을 걱정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는 이 말은 다산이 아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대목이다.

나는 책을 펴내는 일도 다산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이 한 구절은 내가 어려운 처지를 당할 때면 적잖이 말거울 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냈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아니, 97년에 들어서면서 도리어 몹시 흔들리고 있다고 해야 솔직한 표현이다.

노동법 안기부법 파동으로 한 해를 시작하더니 한보사태라는 결정타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는 견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와 경제를 가릴 것 없이 굽은 자리가 터져나오면서 날마다 날벼락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일거에 추락을 면치 못하리라는 우려가 그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출판 외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한보청문회 생중계, 월드컵 지역예선, 그리고 대통령선거까지 '악재'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어서 출판인들의 시름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산업의 정신적 문화적 바탕을 나는 출판을 포괄하는 지식산업이라고 여겨왔다. 그런데 이즈음 들어 그 산업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게 한결같은 말이다. 위기와 불안은 전염되는 법이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멀리 내다보자는 제안

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교훈(15명)이나 감동(6명)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드물지만 책읽기 자체에 흥미를 나타내는 어린이도 더러 있어 반갑다. "책은 재미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책을 펴면 다 볼 수 있다"거나 "난 책이 좋다. 왜냐면 사랑과 감동을 준다. 또 즐거움과 지식을 준다. 심심할 때 읽어도 정말 좋다"는 어린이도 있다.

좋은 책을 고르는 어린이들의 안목도 높다. 어린이들은 일단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을 가장 좋은 책으로 생각한다(33명). 이밖에 교양(14명), 편집이나 글씨·문장 등 책의 형식(12명), 사실성(12명)도 좋은 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지적한다. 여자 어린이들이 재미와 감동에 높은 점수를 매긴(23명) 반면 남자어린이들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준다(6명).

이밖에도 '출판사가 확실하며 글씨가 뚜렷한 책' '만화책을 쓰지 않은 작가가 쓴 책' '말을 쉽게 풀이하여 알기 쉽게 쓴 책' '재미는 있되 너무 재미에 의존하지 않은 책' '작가의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는 책' '내가 진짜 읽고 싶은 책' '아이들 차원에서 쓴 글' '사실 그대로 나타난 책' 등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요구는 의외로 엄정하고 까다롭다.

좋은 책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만큼이나 폭력적이고 저질적인 책, 특히 일본 성인만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모두 83명의 어린이가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책으로 이런 종류의 책을 꼽았는데, 《짱구는 못말려》의 책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어린이도 많았다(19명).

"일본만화가 국내에 많이 수입되어서 시사문제로 거론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화방 등에서 일본만화를 빌려주며 팔고 있다. 저질·폭력만화를 일부러 수입해다 새로이 편집해서 파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출판사가 있다.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출판사는 처벌받는 길로 아는데... 그런 책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읽는 우리들도 현명하게 선택하는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는 똑부러진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무서운 책도 싫어했다. 남자어린이보다는 여자어린이들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낸다. "공포책을 보면 겁이 나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밤길을 혼자 걸으면 무섭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무섭게만 한다"는 것이 싫어하는 이유. 《공포특급》《숫》《나홀로 영원히》《공포의 검은 미소》 등이 어린이들이 거론한 책이름이다.

좋아하는 작가·출판사

책의 내용이나 효용가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큰 반면 출판사나 작가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이나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어린이들이 좋은 출판사라고 이름을 밝힌 출판사는 50여군데. 이 가운데 지경사가 가장 많은 어린이들(53명)에 의해 좋은 책을 펴내는 출판사로 꼽혔고, 다음으로는 예림당(21명), 능인(20명), 웅진출판(16명), 대교출판(14명), 두산동아와 창작과비평사, 산하, 교학사 등이 5명 이상의 어린이가 좋은 출판사로 꼽은 곳이다.

가장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아동문학가 심경석씨(9명)와 만화가 김수정씨(6명). 이외에도 이원복·이대호·김충원·김도연·소중애·허순봉씨 등이 어린이 3명 이상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작가다. 《아버지》의 작가 김정현씨나 이문열·김홍신·양귀자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밝힌 어린이도 있고 세익스 피어나 삼국지의 저자 나관중, 일본만화가 요코하마 미쓰테루를 만나보고 싶다는 어린이도 더러 있다. 생뽕쭉뻘리, 쥘 베른 등 어린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작가는 가히 생사와 시공을 초월해 있다.

적은 수의 특정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책을 보는 안목이 예사롭지 않으며 엄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독자'임을 보여준다.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 학습효과를 동시에 얻고 싶어 하는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생각은 책이나 책읽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일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린이들이 책에 거는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책의 내용이나 편집형태에 대한 비판도 합당하고 논리적이다. 이 무섭고 예리한 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어린이 책을 기획하고 쓰고 만드는 어른들의 몫이다.

- 박남정 기자

을 하고 싶다. 눈 앞의 어려움만 헤쳐가다보면 자칫 수렁에 빠져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극심한 불황과 시련 속에서 그나마 나를 개인적으로 위안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출판일을 시작한 지 15년만에 가장 아끼는 책인 '산하어린이시리즈' 100권을 이번 달에 펴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첫 시작은 실로 소박하게도 내 자식에게 보여줄 책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 독자들의 '감시'와 격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때 내가 떠올린 말이 바로 '불우국 비시야'였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순수한 국내 필자들이 쓴 어린이책 100권 시리즈를 내는 일은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인내와 근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재력과 능력이 튼튼한 출판사라면 단 두어달만에도 찍어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만들어낸 것들이다. 내심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고 자부한다. 물론 주변의 감시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새로 펴낼 산하어린이 101권 또한 다를 것은 없다. 여전히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불우국 비시야. 나는 오늘도 오체투지로 몸을 던져 포탈라를 향하는 티벳사람처럼 스스로 중얼거리 본다.

나라 어린이를 걱정하지 않는 게 어찌 참된 어린이책 장사꾼이라. ❖